

##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 경 화<sup>¶</sup>

울산과학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Major Students

Kyung-Hwa Seo<sup>¶</sup>

Dep. of Hotel Foodservice and Culinary Arts, Ulsan College<sup>¶</sup>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effective career guidance and direction by identifying the various factors involved i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rate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major field students. This study was established on the hypothesis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velop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basis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which was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Out of 450 survey responses from by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Major Students, a total of 30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ue to missing values and biased responses(response rate: 83.6%). Collected data were identified using SPSS 16.0 and AMOS 5.0. A higher-order factor model was employed (High-order model) befor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is study examine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positive effects on career maturity( $t=6.86, p<0.001$ )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3.83, p<0.001$ ), and career maturity had positi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2.79, p<0.01$ ). As a result, all hypotheses were accepted.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students' faith in themselves with competencies is core competencies with career-related issue can be the driving force that can enable students to develop into mature professional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proposes a need for a systematic and integrated career counseling program that can improve it.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ulinary, food-service management, foodservice industry

#### I. 서 론

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일은 개인 또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미래의 삶

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은 고용불안과 취업난 때문에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Ko MN·Park JH

<sup>¶</sup>: 서경화 khseo@uc.ac.kr, 052-230-0747,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2012). 특히, 대학생의 시기는 진로탐색기인 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탐색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후, 개인의 진로설계에 따라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순간적인 학교 및 학과 선택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JU · Kim MS 201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을 중요시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상담 센터나 경력개발 센터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You MJ 2008).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의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61.4%(전년 대비 0.2%p 상승), 4년제 대학은 54.8%(전년대비 0.8%p 하락)이며, 전공(소계열) 취업률 현황에서 전문대학의 식품·조리 분야는 57.7%(전체 평균 대비 3.7%p 낮음), 4년제 대학 관광학 분야는 59.1%(전체 평균 대비 4.3%p 높음)으로 나타나, 조리·외식전공 분야의 취업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거나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의 작용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의 학생 진로 지도 정책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직업-관련 활동과 더불어 개인의 태도, 가치관과 같은 개인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Lee KH 1997). 이러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은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며,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다(Park WS 2010).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관여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측 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강조하고 있다(Keum JH 2012; Kim MO · Park YS 2012; Jang BS 등 2010; Ko GP · Sim MY 2014; Lee JC · Hong AJ 2013; Oh EJ 2014; Shin JY 등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의사 결정을 위해 개인이 특정과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믿음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Betz et al 1996). 이러한 믿음은 개인의 행동·정서·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태도 등 진로발달에 자신감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이다(Kim JU · Kim MS 2012). 즉, 대학생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발적으로 진로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취업 달성을 목표로 외부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로성숙도는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정에서의 발달적 변화의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 가는 준비 정도이며(Lee MY · Roh HK 1996),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개인의 잠재된 역량 및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켜 가는 준비과정으로 진로선택에서 매우 중요하다(Lee YR · Kim NJ 2013). 이처럼 진로 발달 과정이나 진로 선택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Lee EK 2000), 진로발달 정도를 측정하는데 진로성숙도 뿐 아니라, 진로행동으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진로발달 측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Park JE 등 2011).

그러나 급변하는 외부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행동의 파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연구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Na JK 2013; Na TK · Moon SW 2012; Na TK · Jung YS 2011). 또한 이와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는 아직 미약하여, 전공 대학생들이 인지한 불안정한 취업

환경을 극복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외부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통합적인 관련성 파악은 중요한 의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선택은 정의적 및 인지적 과정의 상호작용 결과로써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의 통합에 기초한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진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Yang MR 2008). 따라서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난 또는 진로결정의 어려운 취업 환경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가진 역량에 대한 믿음과 준비로 적극적인 진로선택행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성숙된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로준비과정 및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생활 뿐 아니라 향후 외식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 A (1977)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Oh EJ 2014), 제안된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업이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 정도라고 밝혔다(Bandura A 1977).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과업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함께 결합된 개념이며(Shin KB 2010),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 특히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

신감을 말한다(Lee JS 2010).

이렇게 진로발달모형에 자기효능감의 주요 변인을 포함시켜 처음으로 직업분야에 적용한 이론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이다(Oh EJ 2014).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의 개념이 1981년 Hackett G & Betz NE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Kim MH · Choi WY 2014; Swanson JL & Gore PA Jr 2000), 그들은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직업 관련 행동들의 이해와 변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고, 직업 선택에 있어 개인의 지각된 범위, 효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경력계획 추진에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Taylor KM & Betz NE(1983)가 진로미결정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이론을 응용하였고,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JY · Lee KH 2014; Lee EK 2000). 이처럼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해 낼 확률은 각 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신념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다고 하였다(Heo HW · Son EY 2011). 진로결정과 관련된 효과적인 자기효능감 척도는 목표설정,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 정확한 자기평가를 포함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Betz et al 1996; Crites JO 1981), 특정 행동 영역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그 행동을 회피하게 하며, 반대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헌신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Bandure 1977; Kim Y S · Kim SH 2007; You MJ 2008).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진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Kim O ·

Kang SH 2010).

## 2.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Super DE(1953)는 진로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생애 과정(life stage)의 탐색기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단계 중에서 개인이 얼마나 도달하는가의 정도이며, 개인이 진로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동과 기대되는 행동의 일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설명하고 있다(Kim O · Kang SH 2010). 진로성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태도, 지식, 기능도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이며(Han YJ · Lee JH 2013), 진로성숙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진로발달에 적합한 지식 · 태도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개인의 습득 정도이다(Park WS 2007). 즉, 진로 발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Jeong EM 등 2012; Kim DJ 등 2015). 결과적으로 진로성숙도는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이 발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Cho TY · Lee MS 2009).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성숙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개념화 하였다. 우선 결정성은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며(Kim O · Kang SH 2010), 준비성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정도 및 관심 정도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 수집 능력을 의미한다(Lee KH · Lee HJ 2000).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 의존하는 비중이나 정도이며(Kim MK 2012), 목적성은 개인

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확신성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성공 정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정도이다(Lee KH 1997). 이와 관련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은 고학년일수록 진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합리적인 유형을 선택한다고 하였다(Choi YJ 등 2014).

## 3.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nt 등(1994)은 진로행동을 개인과 그들의 행동,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Bandura A(1986)의 사회인지모형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진로선택에서 개인적 배경(성격, 성별, 인종, 장애나 건강상태) 변인이 환경적 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학습경험은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다시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 흥미, 목표의 선택, 활동의 선택, 수행영역 및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선택행동 모델을 제시하였다(Kim MH · Choi WY 2014).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란 사회에 진출하려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Oh EJ 2014). Kim BW(1997)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인지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되어도 그에 따르는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행동차원”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진로준비행동을 개념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대학생 개인이 수립한 미래의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활동과 진로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행동이며(Moon S T · Bak MH 2013),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임을 강조하였다(Kim JU · Park SS 2013; Lee CJ · Lee JK 2014).

###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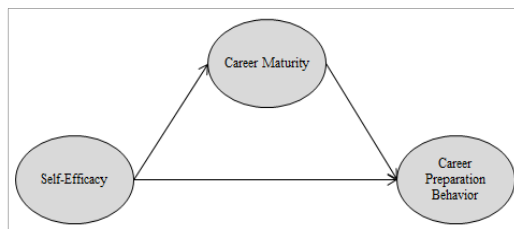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향 모색과 대학 생활뿐 아니라, 진로준비과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 2. 가설설정

#####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Super DE(1969)는 생애 단계의 개념이 진로발달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고, 진로 발달의 개념은 진로성숙의 개념을 산출했다고 보았다(Yang MR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련성 연구를 살펴보면,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MS · Choi KS 2007). 또한, Lee HR과 Cheon MS(2004)는 고등학생의



<Fig. 1> Research model.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인 목표설정은 진로의식 성숙(진로결정도, 진로관여도, 진로독립도, 진로태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자기효능감의 계획수립 하위 변인은 진로의식성숙(진로결정도, 진로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외 전문대학 운동선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적 변수임을 확인하였고(Kornspan AS & Etzel EF 2001), 국내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도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많은 이해와 경험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진로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Yang HS 등 2011).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들 스스로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는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진로성숙도는 태도를 측정하는 요인이며, 진로준비행동은 행동을 측정하는 요인이다(Hwang MK · Moon YJ 2012).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Hwang MK과 Moon YJ (2012)는 고등학생의 진로·직업 역량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진로성숙도(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가 자기에 대한 이해 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사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성숙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Ko GP · Sim MY 2014; Lee SH 2006), Chung MJ(2014)는 4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 진로성숙도의 준비성은 취업준

비행동(취업상담활동 및 정보탐색활동), 목적성은 준비계획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얻어진 성숙된 진로태도는 진로준비행동의 단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2 진로성숙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자기효능감과 성과 사이에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관련성을 나타낸다(Manz CC 1986; Prussia et al 1998). 진로의사 결정을 위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깊은 신뢰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직업 선택에 기대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Gushue GV 2006), Lee JC과 Hong AJ(2013)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활발해지므로,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진로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전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사와 진로결정을 포함한 진로선택 몰입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되었다(Wang et al 2006). You MJ (2008)는 비서학 전공학생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해진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가장 높은 효능감은 ‘목표선택’ 요인이라 하였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미래지향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변인(직업탐색, 진로면담, 진로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Jang BS 2010), 교육대학생들의 교사 임용과 관련된 진로준비행동은 시험 준비와 학점 취득 등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로 개인의 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Keum JH 2012).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이다(Hackett G & Betz NE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행동결과의 관련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초기연구는 Taylor KM & Betz NE(1983)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인 총 50문항을 개발하였으며, Betz 등(1996)이 이를 25항목(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으로 측정도구를 축소하였다. 국내에서도 Lee EJ(2001)의 CDMSES-SF 도구 사용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가 높게 나타났다(Kim JU · Kim MS 2012; Kim MJ 등 2012; Ahn TY · Kim SY 2013; Lee KH · Lee HJ 2000). 본 연구는 CDMSES-SF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각 5개의 문항으로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2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Parson FW(1909)의 특질-요인이론과 Crites JO(1961)의 발달이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Lee KH(1997)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고안하여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본 연구는 Lee KH(1997),

Kim HJ(2007), Jeong HY(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정성 6문항, 준비성 5문항, 독립성 4문항, 목적성 5문항, 확신성 3문항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총 23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측정 항목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Kim BW(1997)의 도구 사용을 시작으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탐구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선행연구들에서도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h EJ 2014; Lee SJ 2013). 본 연구는 Kim BW (1997)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상담활동 5문항, 도구준비활동 5문항, 목표달성활동 7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총 17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에 대해 성별, 교육정도, 전공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4.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리·외식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외식이라는 범위 내 베이커리 전공 대학생을 포함하여 조리·외식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년제 대학은 졸업예정자인 2학년, 4년제 대학은 3~4학년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30일간)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포하여 수거된 설문지에서 응답의 편중성향이 너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376부(83.6%)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 16.0과 AMOS 5.0을 이용하였다. 우선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각 요인에 대해 high-order 모델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초기 제안한 모형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으로 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인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토하였고, 본 연구의 가설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요약되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은 183명(48.7%)과 193명(51.3%)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별로는 2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12명(56.4%),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64명(43.6%)이었다.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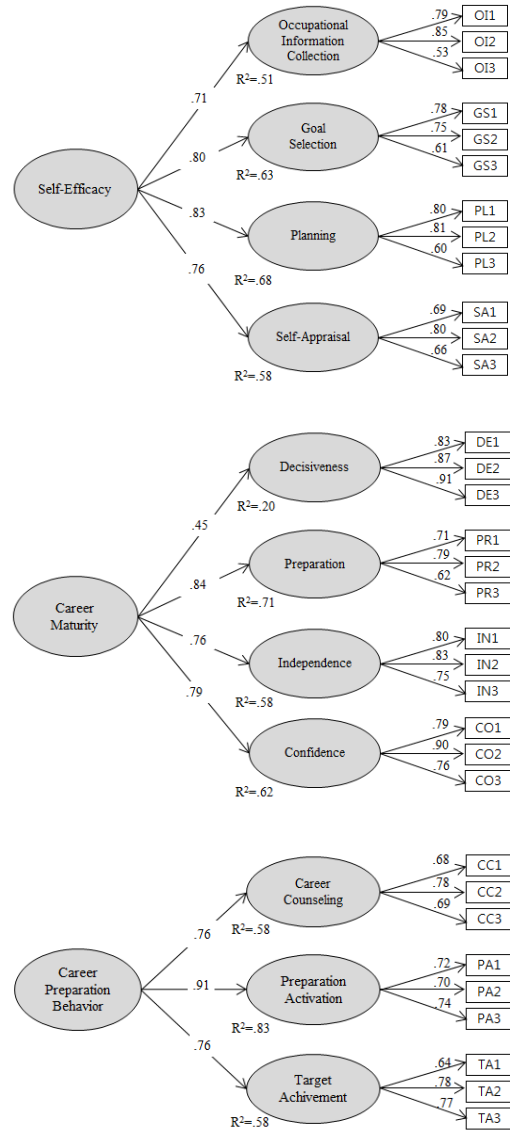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376)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83	48.7
	Female	193	51.3
Education	College	212	56.4
	University	164	43.6
Department	Cooking	220	58.5
	Bakery	46	12.2
	Cook & foodservice management	110	29.3

별로는 조리전공 58.5%, 베이커리전공 12.2%, 조리외식경영학 전공 29.3%으로 나타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SEM 검증을 실시하기 전,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각 잠재요인별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각 요인과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고차요인모형(High-order model)을 우선 실시하였다. 이러한 2차 요인 모형은 2차 요인이 다수의 1차 요인들에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김계수 2007). 본 연구의 Model SE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 요인 중 경로계수가 가장 낮은 ‘문제해결’ 요인을 제외한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자기평가’의 4개 요인을 포함하고, Model CM은 진로성숙도의 5개 요인 중 경로계수가 가장 낮은 ‘목적성’ 요인을 제외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의 4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Model CPB는 진로준비행동의 ‘진로상담활동’, ‘도구준비활동’, ‘목표달성활동’ 3개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의 결과, Model SE는  $\chi^2=95.74(p<0.001)$ ,  $df=50$ ,  $\chi^2/df=1.92$ , GFI=0.96, CFI=0.97, RMR=0.04, RMSEA=0.05, Model CM은  $\chi^2=106.89(p<0.001)$ ,  $df=50$ ,  $\chi^2/df=2.14$ , GFI=0.96, CFI=0.98, RMR=0.05, RMSEA=0.06, Model CPB는  $\chi^2=52.66(p<0.001)$ ,  $df=24$ ,  $\chi^2/df=2.20$ , GFI=0.97, CFI=0.98, RMR=0.04, RMSEA=0.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 적합도 지수인  $\chi^2/df$  값이 3 이하(엄격하



<Fig. 2> 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게는 2.0 이하), GFI 0.90 이상, RMR 0.05 이하 (0.10 이하 수용가능), RMSEA 0.08 이하와 증분

<Table 2> Overall measurement model indices for place attachment as a second-order factor

Model	$\chi^2$	df	$\chi^2/df$	GFI	CFI	RMR	RMSEA
SE	95.74	50	1.92	0.96	0.97	0.04	0.05
CM	106.89	50	2.14	0.96	0.98	0.05	0.06
CPB	52.66	24	2.20	0.97	0.98	0.04	0.06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tems	F. L.	t-value	CCR	AVE	Cronbach's α
Occupational information collection	OI1. I can easily find information about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career fields in the library and internet.	0.80	fixed			
	OI2. I can easily find information about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career fields in my educational institution.	0.84	14.25***	0.80	0.54	0.75
	OI3. I can easily find out the employment trends over the next 10 years in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career fields.	0.53	9.66***			
Goal selection	GS1. I can select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occupation from a list of potential occupations being considering.	0.78	fixed			
	GS2. I can select one detailed major(Korean/Western/Chinese/Japanese cuisine, Bakery, Barista etc.) in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career field.	0.75	13.07***	0.76	0.51	0.75
	GS3. I select make a career decision, and then not worry about whether it was right or wrong.	0.60	10.74***			
Planning	PL1. I can make a 5 year career goal plan	0.81	fixed			
	PL2. I can determine the steps I need to take to successfully achieve my chosen career.	0.79	15.62***	0.81	0.55	0.77
	PL3. I can prepare a good resume to successfully achieve my chosen career.	0.62	11.92***			
Self-appraisal	SA1. I can decide what my ideal job is.	0.69	fixed			
	SA2. I can prioritize various values associated with the occupation.	0.80	12.06***	0.82	0.52	0.76
	SA3. I can figure out what I am able to sacrifice to achieve my career goals.	0.67	10.81***			
Decisiveness	DE1. I have already decided what to do in the future.	0.83	fixed			
	DE2. I do not worry about a career choice because I have already decided my career.	0.87	20.26***	0.88	0.76	0.90
	DE3. I am in a state of having made a definite decision about my career.	0.91	21.46***			
Preparation	PR1. I want to talk about the career with the desired job.	0.71	fixed			
	PR2. I should plan ahead to get the career what I want.	0.79	12.63***	0.81	0.51	0.75
	PR3. I am very interested about a promising career in the future.	0.62	10.53***			
Independence	IN1. Regardless of others, I have to choose the career that I want to do.	0.80	fixed			
	IN2. I must select a job with the belief to live my own life.	0.83	15.75***	0.87	0.63	0.83
	IN3. I will choose a job based on the criteria that I set.	0.75	14.34***			
Confidence	CO1. I have confidence in myself and my job.	0.80	fixed			
	CO2. I have confidence I will succeed in my chosen career field.	0.89	18.28***	0.89	0.68	0.86
	CO3. I have confidence I will receive recognition from the boss in my chosen career field.	0.77	15.90***			
Career counseling	CC1. Over the past few weeks, I have read or bought books and brochures associated with the job or career in which I am interested.	0.66	fixed			
	CC2. Over the past few weeks, I have talked with my friends about my aptitude and career(job) in the future.	0.80	11.65***	0.76	0.52	0.75
	CC3. Over the past few weeks, I have talked with my parents about my aptitude and career(job) in the future.	0.69	10.71***			
Preparation activation	PA1. Over the past few months, I have directly visited or established a plan to visit an organizations(hotel, restaurant etc.) associated with job or career that I have an interest.	0.72	fixed			
	PA2. Over the past few weeks, I have been searched on the internet or watched TV programs about the data associated with the job or career in which I am interested.	0.72	12.00***	0.76	0.52	0.76
	PA3. Over the past few months, I have been talked with professionals or employees working directly in the fields of the job or career in which I am interested.	0.73	12.11***			
Target achievement activation	TA1. I will prepare for employment with the academy registration in order to get a job that I have an interest.	0.64	fixed			
	TA2. I have been constantly checking the performed work or preparing a detailed plan for work to do in future to achieve goals in my chosen career.	0.80	11.51***	0.78	0.53	0.77
	TA3. I have collected or plan to collect a variety of information(work methods, maintenance and promotion system etc.) about the companies(hotels, restaurants, catering, etc.) in which I am interested	0.74	11.11***			

$\chi^2=680.90(p<0.001)$ ,  $df=440$ ,  $\chi^2/df=1.55$ ,  $GFI=0.90$ ,  $CFI=0.96$ ,  $RMR=0.04$ ,  $RMSEA=0.04$

\*\*\*  $p<0.001$ ,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적합도 지수인 CFI 0.90 이상이면 좋다는 기준(Kuo et al 2009; 이학식·임지훈 2009)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각 1차 요인을 포함하는 고차계수를 확인하였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Table 3),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680.90(p<0.001)$ ,  $df=440$ ,  $\chi^2/df=1.55$ , GFI=0.90, CFI=0.96, RMR=0.04, RMSEA=0.04 등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제시한 적합도 지수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타당도는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측정되어진다(Hyun YH 2010). 우선, 집중타당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공한 값들의 평균으로 그 크기가 0.5 이상(Bagozzi RP·Yi Y 1988), 요인부하량과 오차분

산의 값으로 계산되는 합성요인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는 0.7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이학식·임지훈 2009), 본 연구의 검증 결과, AVE의 크기가 모두 0.51~0.76이고, CCR의 값이 0.76~0.89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Cronbach's  $\alpha$ 의 계수는 모두 0.75(직업정보, 목표설정, 준비성, 진로상담활동)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구성 개념 간 내적 일관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판별타당도는 각각의 잠재요인 AVE의 값이 각 잠재요인들 간 상관계수( $R^2$ )보다 크면 요인들 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이학식·임지훈 2009), 이 또한, 상관계수의 값( $R^2$ )이 0.08~0.48로 나타나 AVE 값이 가장 낮은 '목표설정'과 '준비행동' 요인의 0.51보다 낮아 모든 잠재요인은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구성개념 간에 개념타당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Table 4).

〈Table 4〉 AVE and correlation square of items

Items	M±SD <sup>a)</sup>	1	2	3	4	5	6	7	8	9	10	11
1. Occupational information collection	3.26±0.73	(0.54) <sup>1)</sup>	0.43 <sup>2)</sup>	0.31	0.24	0.21	0.09	0.09	0.14	0.13	0.14	0.19
2. Goal selection	3.48±0.81		(0.51)	0.39	0.32	0.25	0.22	0.17	0.22	0.19	0.37	0.21
3. Planning	3.28±0.78			(0.55)	0.48	0.45	0.25	0.11	0.39	0.22	0.34	0.42
4. Self-appraisal	3.46±0.70				(0.52)	0.26	0.16	0.16	0.26	0.25	0.20	0.24
5. Decisiveness	3.29±1.01					(0.76)	0.11	0.08	0.21	0.13	0.20	0.27
6. Preparation	3.80±0.70						(0.51)	0.47	0.42	0.34	0.25	0.17
7. Independence	3.93±0.74							(0.63)	0.34	0.16	0.13	0.08
8. Confidence	3.65±0.78								(0.68)	0.28	0.23	0.21
9. Career counseling	3.55±0.82									(0.52)	0.47	0.32
10. Preparation activation	3.41±0.84										(0.52)	0.46
11. Target achievement activation	3.07±0.82											(0.53)

a) 5 point-Likert scale, ( )<sup>1)</sup> : AVE, <sup>2)</sup> R<sup>2</sup>.

<Table 5> Results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Hypothesized relationship	Standardized estimate	C. R.	Results
H1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0.21	6.86***	Supported
H2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2	2.79**	Supported
H3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23	3.83***	Supported
$\chi^2=805.62(p<0.001)$ , $df=473$ , $\chi^2/df=1.70$ , GFI=0.88, CFI=0.94, RMR=0.06, RMSEA=0.04				

\*  $p<0.05$ , \*\*  $p<0.01$ .

### 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초기 제안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수정 모형의 분석 결과,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05.62(p<0.001)$ ,  $df=473$ ,  $\chi^2/df=1.70$ , GFI=0.88, CFI=0.94, RMR=0.06, RMSEA=0.04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일부 GFI가 기준치를 상회하진 않으나, 통계적 기준의 다른 절대 적합도 지수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설정되었으며(H1), 그 결과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beta=0.21(t=6.86, p<0.001)$ 로 분석되었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설정되었으며(H2),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beta=0.12(t=2.79, p<0.01)$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설정되었으며(H3),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beta=0.23(t=3.83, p<0.001)$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 1, 2, 3은 모두 채택되었다.

## V. 결 론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들은 불안한 취업 환경으로 진로 결정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대학은 학생들의 발전된 미래 설계를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치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정체성과 개성을 찾아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진로발달단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외식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근본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t=6.86, p<0.001$ ),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결과(Keum JH 2012; Lee YR·Kim NJ 2013)와 동일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성숙된 진로의식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둘째, 진로성숙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t=2.79, p<0.01$ ),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Ko GP·Sim MY 2014), 이는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발달단계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직업적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Kim MK 2012)를 지지해 주고 있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t=3.83, p<0.001$ ), 가설 3 또한, 채택되었다. 이는 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Ahn TY · Kim SY 2013; Oh EJ 2014). 마지막으로 조리 ·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기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파악의 차원을 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 진로준비행동의 통합적인 구조 관계를 확인하였다( $\chi^2=805.62(p<0.001)$ ,  $df=473$ ,  $\chi^2/df=1.70$ ,  $GFI=0.88$ ,  $CFI=0.94$ ,  $RMR=0.06$ ,  $RMSEA=0.04$ ). 결과적으로 대학생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자기평가)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나타나, 학생 스스로가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목표설정,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자기평가를 통하여 성숙된 진로의식이 함양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관 확립과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조리 · 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을 검증한 결과,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ang HS 등(2011)의 진로 목표, 진로계획, 진로해결 요인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차별화된 진로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조리 · 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대학도서관이나 학과에서는 직업분야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의 조성 및 정보획득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목록 중 조리 · 외식 분야로의 직업 선택 및 목표 설정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즉, 전문 조리인으로써의 자긍심 강화 및 현장중심의 조리직무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기업체 인

사초청 특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신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심리 · 적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진로탐색이나 진로계획을 위한 로드맵 설계와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선택에 대한 가치와 본인 능력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준비와 경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취업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진로성숙도(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나타나, 성숙된 진로의식은 구체적인 취업행동으로 발전되고, 어려운 취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리 · 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은 Yang HS 등(2011)의 태권도 전공 대학생 관련 연구보다 준비성 및 독립성, Jeong HY 과 Park OL(2009)의 미용전공 대학생 관련 연구보다 확신성이 중요함을 추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리 · 외식 전공 대학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명확히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성공적인 취업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 · 후배간의 관계 강화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및 성취도 향상을 일으키고, 취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에 틀림없다. 따라서 인적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은 조리 · 외식 산업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강화와 동문회 활성화는 진로발달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직업준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성의 강화와 소신 있는 직업의 선택 및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성은 진로성장발달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선택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직업 관념 차이에 따른 만족할만한 평생 직업을 제공하는데 학교와 학과는 한계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본인 스스로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시켜, 체계적인 경력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진로상담활동, 도구준비활동, 목표달성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직업 미결정에 중요한 예측 인자이며, 진로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효능 수준 파악은 적절한 진로 방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Taylor KM & Popma J 1990)는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Lee MY과 Roh HK(1996)는 진로상담의 강화가 진로성숙 수준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내적 통제 신념을 길러 지식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아실현을 위한 전인교육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Na TK(2014)는 외식 관련 전공 교수들이 진로상담을 할 때 생물학 특성 성 역할 정체감의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취업을 직전에 둔 대학생들과의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강화는 진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 및 학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로 하며, 진로상담소의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학생-학과-진로상담소의 통합적인 시스템의 운영으로 진로행동의 발전과 취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의 취업률 증가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취업준비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4년제 대학생보다 2년제 학생의 평가가 일부 높았으며, 표본을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추가 분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원을 파악함으로써 지속적인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발달행동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와 진로행동을 발전시키는 구조적 관계의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45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376부(83.6%)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과 AMOS 5.0을 이용하였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고차원요인모형(High-order model)을 사용하였고, 가설검정을 위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 $t=6.86, p<0.001$ ), 진로준비행동( $t=3.83, p<0.001$ ),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진로준비행동( $t=2.79, p<0.01$ )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이 가진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진로 관련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

## 참고문헌

- 김계수 (2007).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 이학식, 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6.0. 법문사, 33-191,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rites JO (1981). Career counseling: Methods, model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 Hill.
- Parsons FW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Super D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wanson JL, Gore PA Jr (2000).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3rd), New York: Wiley.
- Ahn TY, Kim SY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Centering around college students in Busan. *The J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6): 21-42.
- Bagozzi RP,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74-9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191-215.
- Betz NE, Klein KL, Taylor K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 of Career Assessment* 4 (1):47-57.
- Cho MS, Choi KS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 J of Counseling* 8(3):1085-1099.
- Cho TY, Lee MS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vocational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flight services-related studies. *J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7(1):69-86.
- Choi YJ, Lee IH, Kim YJ (2014).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o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2):7068-7076.
- Chung MJ (2014).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J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2(1):81-104.
- Gushue GV (2006). The relationship of ethnic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among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J of Vocational Behavior* 68:85-95.
- Hackett G, Betz N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 of Vocational Behavior* 18(3):326-339.
- Han YJ, Lee JH (2013).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2):76-92.
- Heo HW, Son EY (2011).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1):51-66.

- Hyun YH (2010). The study of the image change of a destination based on the groups of the festival motivations: Docusing on the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Korea J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19(3):21-38.
- Hwang MK, Moon YJ (2012). The effects of career and work competen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J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1:1-25.
- Jang BS, Choi YL, Lee J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aturity of conscious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s. *J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0: 57-67.
- Jeong EM, Yu HK, Cho YS (2012). The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dropou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4):93-115.
- Jeong HY (2010).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M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100, Busan.
- Jeong HY, Park OL (2009). Effect of self efficacy in college students majored in beauty art on the career maturity level. *J Kor Soc Cosm* 15(4): 1363-1371.
- Keum J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career maturity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J Korean Home Econ Assoc* 50(7):59-66.
- Kim BW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Ms Thesis, Seoul University 1-152, Seoul.
- Kim DJ, Song SS, Choi HC (2015).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career vision school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 of Child Education* 24 (4):123-138.
- Kim HJ(2007).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60-61, Seoul.
- Kim JU, Kim MS (2012).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based upon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 (3):201-227.
- Kim JU, Park SS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123-141.
- Kim JY, Lee KH (2014).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 (3):1-25.
- Kim MH, Choi WY (2014).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general female high school stud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83-107.
- Kim MJ, Kim HJ, Kim DJ (2012). A study on the mediating role of mathematics anxiety in the

- influence of self efficacy on mathematics skill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8(4):59-69.
- Kim MK (2012). A study of adolescents' career capacity program effects on career decision efficiency and career maturity in multi cultural families. *Asian J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3(3):147-171.
- Kim MO, Park Y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 of Youth Studies* 19(11):69-90.
- Kim O, Kang SH (2010). The effect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 of Educational Psychology* 24(3):687-706.
- Kim YS, Kim SH (2010).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teamwork,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of hotel staffs. *J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37:97-108.
- Ko GP, Sim MY (2014).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19-38.
- Ko MN, Park JH (2012). A comparison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cision status for college students of different school year. *The J Career Education Research* 25(2): 81-100.
- Kornspan AS, Etzel EF (2001). The relationship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o career maturity of junior college student-athletes. *J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2): 122-132.
- Kuo YF, WU CM, Deng WJ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post-purchase intention in mobile value-added services. *Computers Human Behavior* 25(4):887-896.
- Lee CJ, Lee JK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tress among students of health care and social work. *Social Science Studies* 28(3):319-339.
- Lee EJ (2001).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 potential college students. Ms Thesis, Yonsei University 124-125, Seoul.
- Lee EK (2000).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6-16, Seoul.
- Lee HR, Cheon MS (2004).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levels on decision-making abil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7(2):106-128.
- Lee JC, Hong AJ (201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The J of career Education* 26(1):69-92.
- Lee K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 focus on self-esteem, work value, locus of control. MS Thesis, Yonsei University 2-73, Seoul.
- Lee JS (2010).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adaptation to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M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5, Seoul.



- Lee KH, Lee H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J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127-136.
- Lee MY, Roh HK(1996). A study on the effects of a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on career maturity, self-identity and locus of control of adolescents.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20:31-57.
- Lee S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variab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399-417.
- Lee SJ (2013). Analysis of relations among core competency, career in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1):119-139.
- Lee YR, Kim NJ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of college women : A mediating effect of the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 of Youth Studies* 20(8):97-120.
- Lent RW, Brown ST,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performance. *J of Vocational Behavior* 45:79-122.
- Manz C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d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585-600.
- Moon ST, Bak MH (2013).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185-204.
- Na JK (2013).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ith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students-Focused on the culinary and baking science and art major-. *J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6(6):239-264.
- Na TK (2014). The difference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biological sex and sex-role identity typ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The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20(3):50-63.
- Na TK, Jung YS (2011). The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s majors-Focused on the four-year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The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7(4):238-250.
- Na TK, Moon SW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rofess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 majors -Focus on the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The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8(2):106-177.
- Oh EJ (2014).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 of Youth Studies* 21(4):31-58.
- Park JE, Lee JA, Lee JY, Chung IJ (2011).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verty. *J of Adolescent Welfare* 13(3):93-116.
- Park WS (2007). The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effect on career maturity for secondary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4):87-101.

- Park WS (2010). The study on psychological variables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4):57-73.
- Prussia GE, Anderson JS, Manz CC (1998).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 The mediation influence of self-efficacy. *J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528-538.
- Shin JY, Park SS, Hyung JE (2012).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1):19-35.
- Shin KB (2010).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of service employees. *J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7(1):91-104.
- Super D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185-190.
- Super D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y* 1:2-20.
- Taylor KM, Betz N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22:63-81.
- Taylor KM,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vocational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37(1):17-31.
- Tracey TJG (1997). The structure of interests and self-efficacy expectations: An expanded examination of the spherical model of interests. *J of Counseling Psychology* 44(1):32-43.
- Wang N, Jome LM, Haase RF, Bruch MA (2006).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J of Career Assessment* 14(3):312-33.
- Yang HS, Yoon JU, Yang TI (2011).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of Taekwondo major college students. *The J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3(2):81-96.
- Yang MR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career counseling activity on affective and cognitive domain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2):73-91.
- You MJ (2008). Impact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66, Seoul.

---

2016년 02월 22일 접수  
 2016년 03월 09일 1차 논문수정  
 2016년 03월 15일 2차 논문수정  
 2016년 04월 03일 논문 게재확정